

프로농구 인삼공사, 통산 세 번째 챔피언 등극... MVP 설린저

인삼공사, 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PO 10전 전승 우승

2016~2017시즌 이후 4년 만에 정상...역대 4번째 V3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안방에서 구단 통산 세 번째 챔피언에 등극했다.

인삼공사는 9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 4차전에서 84-74로 승리했다.

이로써 1~2차전 전주 원정고과 3~4차전 안양 홈 경기에서 모두 이긴 인삼공사는 챔피언전 4연승으로 2016-2017시즌 이후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2011~2021, 2016-2017시즌에 이은 통산 세 번째 챔피언 등극이다. 홈 팬들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는 처음이다.

또 울산 현대모비스(7회), 전주 KCC(5회), 원주DB(3회)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챔피언 정상에 오른 역대 4번째 팀이 됐다.

역대 챔피언결정전에서 1~3차전을 모두 이긴 팀이 우승한 사례는 세 번(2005~2006, 2012~2013, 2014~2015) 있었고, 이 세 번의 시리즈는 예외 없이 1~3차전에 승리한 팀의 4전 전승을 끝냈는데, 인삼공사가 이 기록을 이어갔다.

정규리그 1위와 3위의 맞대결은 통산 9번째였는데, 3위팀이 이긴 건 이번이 3번째다.

인삼공사는 이번 시즌 6강과 4강 플레이오프에 이어 이날 경기까지 승리하며 1997년 프로농구 출범 이후 최초로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결정전 10연승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2005-2006시즌 서울 삼성과 2012-2013시즌 현대모비스가 4강 플레이오프부터 7전 전승 우승을 달성한 적은 있지만, 6강부터 무패 우승을 달성한 건 인삼공사가 처음이다.

인삼공사는 TG삼보(2002~2003), KCC(2008~2009, 2010~2011), 고양 오리온(2015~2016)에 이어 역대 6강 플레이오프부터

챔피언전까지 올라와 우승한 5번째 팀이기도 하다.

10전 전승 우승을 이끈 김승기 감독은 플레이오프 승률을 70.6%(24승10패)로 끌어올렸다. 챔피언결정전 승률은 80%(8승2패)로 김동광 감독과 함께 공동 1위가 됐다.

반면 정규리그 1위로 2015~2016시즌 이후 5시즌 만에 통산 6번째이자 3번째 통합우승(1997~1998, 1998~1999)에 도전했던 KCC는 인삼공사에 기세가 밀려 챔피언전 준우승에 머물렀다.

인삼공사는 '설교수' 제라드 설린저가 42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로 챔피언전 마지막 경기까지 명강의를 펼쳤다. 또 오세근이 20점 7리바운드로 인삼공사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설린저는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총 86표 중 55표를 득표하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됐다.

플레이오프 MVP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플레이오프 우승팀에는 1억원, 준우승팀에는 5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KCC는 정규리그 MVP 송교창이 22점, 정창영이 18점, 라건아가 12점으로 분전했지만, 인삼공사의 질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1쿼터 18-17, 1점 차로 근소하게 앞서 나간 인삼공사는 2쿼터 설린저가 내외곽을 장악하고 오세근, 변준형 등 국내 선수들까지 득점에 본격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10점 차 이상 달아났다.

특히 설린저는 2쿼터에만 3점슛 3개를 포함 17점을 몰아넣으며 KCC 추격을 찬물을 끼얹었다. KCC는 정창영, 송교창, 이정현이 활로를



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안양 KGC 인삼공사와 전주 KCC 이지스의 4차전 경기, 84-74 승리에 챔피언을 차지한 안양 김승기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찾으려 노력했으나, 라건아가 2쿼터까지 4점에 묶이며 인삼공사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14점 앞선 채 3쿼터에 들어간 인삼공사의 외곽은 더 불을 뿜기 시작했다. 슈터 전성현의 3점슛을 시작으로 이재도, 설린저까지 연속 3점을 쏘아 올리며 20점 차 이상 점수를 벌였다.

KCC는 송교창이 3쿼터 중반 이후 살아나면서 인삼공사를 압박했다. 3점슛 2개를 포함 14점을 집중시킨 송교창의 활약으로 마지막 4쿼터를 앞두고 11점까지 따라붙었다.

인삼공사는 4쿼터 초반 KCC에 5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며 잠시 흔들렸지만, 설린저와 오세근이 차근차근 점수를 쌓으면서 위기를

넘겼다. 경기 종료 3분14초를 남기고는 설린저가 덩크슛을 작렬시키며 다시 13점 차 리드를 되찾았다.

결국 인삼공사가 남은 시간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홈 팬들 앞에서 통산 세 번째 별을 품었다.

뉴스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탁구선수반 '눈에 띄네'

초등학생 13명 등록...미래 스포츠 스타 꿈꾸며 '구슬땀'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탁구 선수반이 대 한체육회 사업인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진도 출신 은퇴 교사와 전문엘리트 선수 출신 탁구 강사를 지도자로 활용해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탁구선수반을 운영하고 있

으며,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사설 클럽과의 질적 차별화에 역점을 뒀다.

현재 초등학생 13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3~4시간씩 활동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스포츠 스타 배출을 목표로

재능 있는 선수와 장래가 촉망되는 많은 선수들을 육성해 스포츠 클럽으로 최성상이 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마사회 탁구단의 간판인 주세혁 선수가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탁구장을 방문해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탁구 선수반을 대상으로 1:1 레슨을 진행하기도 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과 순발력 향상에 탁월하며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시작한다면 성장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은 탁구 스포츠 클럽 운영으로 진도의 학생들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아리랑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학생들이 탁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있다.

진도=조성용기자

토론토 "베이브 류스는 준비 중"

베트 잡은 류현진 공개...13일 등판 유력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오랜만에 베트를 잡는다.

토론토 구단은 9일(한국시간) 공식 트위터에 타격 훈련을 하는 류현진의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 류현진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하고 있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 제도가 있어 투수가 타석에 서지 않는다. 대신 내셔널리그 팀의 홈경기로 인터리그를 치를 땐 지명타자를 두지 않아 투수도 방향이를 든다.

토론토는 12~1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인터리그 원정 3연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에 나섰던 류현진은 13일 등판이 유력하다.

모처럼 '타자 류현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토론토 구단도 류현진의 사진과 함께 "베이브 류스가 다음주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빅리그 데뷔 첫 해였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내셔널리그 LA 다저스에서 뛰었다.

마운드를 지키며 타석에서도 소질을 드러내 전설적인 강타자 베이브 류스를 빚낸 '베이브



류스라는 별명도 붙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정규시즌에서 마지막으로 베트를 쥔 건 다저스에서 뛰던 2019년 9월 29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이다. 당시 2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포스트시즌에서는 같은 해 10월 7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게 가장 최근 기록이다.

류현진은 타석에서 통산 타율 0.178(213타수 38안타) 1홈런 12타점의 성적을 냈다.

뉴스

빛바랜 손흥민 한 시즌 최다골...토티넘, 리즈에 1-3 완패

17호골 유럽 최다골 타이 '전설' 차범근과 어깨 나란히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티넘)이 '전설' 차범근과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을 세웠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앨런 로드에서 열린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25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뽐낸 손흥민은 전반 13분 슈트어트 맬러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골라가던 전반 25분 델리 알리의 전진 패스를 받아 상대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슈트로 균형을 맞췄다.

3경기 연속골이자 정규리그 17호골에 성공한 손흥민은 한국 축구 전설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작성한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17골)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 EPL 17골, 리그컵(카라바오컵) 1골, 유로파리그 4골(에선 1골 포함) 등 모든 대회에서 22번째 골에 성공하며 2016-2017시즌 자신의 기록했던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새로 썼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에도 토티넘은 승리에 실패했다. 전반 42분 패트릭 뱅포드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다시 리드를 빼앗겼다.

반격에 나선 토티넘 후반 10분 손흥민이 날카로운 왼발 슈트를 시도했지만, 옆 그물을 때리며 아쉬움을 삼켰다.

토티넘은 후반 22분 알리와 가레스 베일을 빼고 에릭 라벨라, 루카스 모우라를 동시에 투



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후반 39분 쉐기골을 허용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교체로 나온 리즈의 호드리고가 하피냐의 패스를 왼발로 마무리하며 쉐기를 바꿨다.

2연승이 끊긴 토티넘은 승점 56(16승8무11패)에 그치며 6위에 머물렀다.

정규리그 3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노는 4위 첼시(승점 61)와는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광현, 12일 밀워키전 등판...시즌 2승 도전

지난해 밀워키 상대로 2경기서 1승 평균자책점 0.75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시즌 2승 사냥에 나선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9일(한국시간) 게임 노트를 통해 김광현이 12일 오전8시40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열리는 밀워키와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밝혔다.

다섯 휴식 후 오르는 시즌 2승 도전 무대다. 두 번째 등판이었던 지난달 24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따낸 김광현은 이후 두 차례 등판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등판인 지난 6일 뉴욕 메츠와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4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일찍 교체됐다.



김광현은 올 시즌 1승무패 평균자책점 3.06의 성적을 내고 있다.

밀워키는 김광현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팀이다. 지난해 빅리그 데뷔 후 밀워키를 두 차례 상대해 1승무패 평균자책점 0.75의 뛰어난 성적을 냈다.